

일본불교 곳곳엔 한반도 옛 선현의 자취가

동행취재-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일본고찰순례'

일본은 우리에게 가깝고 친숙하면서도 멀고 낯설다. 특히 일본불교에 대해서는 '대처식'의 범주를 범하고 있는 왜곡된 문화를 가진 상식 밖의 불교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 반면 세계는 일본불교의 '젠(ZEN)'을 비롯해 그들의 문화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질문이 들었다. '어쩌면 일제 강점기이라는 암울한 우리의 근대사가 일본을 바로 볼 수 있는 편견이 되는 것은 아닐까?'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이 승려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일본 고찰 순례'에 동행하면서도 이 질문은 떠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순례는 일본불교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 간 일본의 교토와 오사카, 나라 등 관서 지방의 고찰을 순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일본 정보통신 전문가인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을 지도법사로 40명의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했다.

고구려와 백제의 승려를 스승으로 삼고 불교를 융성시킨 쇼토쿠 태자가 건립한 법흥사에는 중국의 원강 석불, 경주 석굴암과 더불어 동양 3대 미술품으로 손꼽히는 고구려 화승 담징의 금당 벽화가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일본의 국보이기도 한 '백제관음상'이다. 백제 장인이 만들어져 '백제 관음'으로 명명된 이 불상은 2.8m의 크기에도 수려한 조각미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오직 '아름답다'라는 감탄사가 나올 뿐이다.

백제의 조각 문화가 일본에 전래되는 순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순례단 스님들 너나 할 것 없이 '백제관음상' 앞에서 반아심경을 봉독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스님들은 옛 선현들의 발자취가 있는 곳마다 예경을 드렸다.

선현의 자취가 가장 도드라진 곳은 바로 동대사였다. 높이가 16.2m로 세계 최대 청동대불이 있는 동대사는 백제 도래인의 후

이 안에는 117개의 사찰이 있다. 이중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같은 개념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숙박사찰이 52개가 존재한다.

고야산에서 꼭 가볼만 한 곳은 '오쿠노인'이라고 하는 공동묘지다. 이치노하시 사당까지 아름드리 삼나무들 사이로 2km 가장 조성된 묘지들을 따라 걷는 길은 마치 하이킹 코스와 같다. 실제 일본인들은 죽어서 꼭 고야산에 묻히길 소망한다고 한다. 고야산 답사 전 보광 스님은 일본불교의 상제 문화이자 사찰 핵심 신도 조직 중 하나인 '단가(檀家)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단가' 제도를 통해서만 왜 일본불교가 생활형 불교인지 알 수 있었다.

'일본은 종교법인이 있어서 모든 사찰이 곧 하나의 법인입니다. 법인화 된 사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단가'입니다. '단가'는 자신의 제적사찰을 가지고 그 안에 가묘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찰을 운영하고 개보수하며, 자신의 주지 스님들에게 월보시를 드립니다. 대신 주지 스님은 '단가' 회원들의 가묘를 관리하고 가구를 돌며 기도과 법문을 설합니다.'

고야산 순례에서는 진언종립 고야산 대학의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일본불교는 강점은 교육과 복지사업에 종단의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오사카의 사천왕사는 자제 병원과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야산의 진언종도 중립 대학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과제였다.

진언종 총무원이 있는 금강봉사에서는 진언종 총무원장 소에다 류소 스님과 대담도 진행했다. 이날 보광 스님과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이후 조계종 스님들이 연수 프로그램으로 시코쿠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으며, 류소 스님은 흔쾌히 승낙했다.

마지막날 보광 스님은 적송원에서의 아침예불을 마치고 이번 순례에 대한 총평을 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일본불교를 왜곡된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은 데 이는 무지의 소산이다. 그들 문화 안에서 일본 스님들이 어떻게 철저히 수행하는지를 봤을 것이다. 이번 순례가 일본 불교의 좋은 점을 취해 한국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순례단 참가 스님들도 일본 불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구미 저비사 주지 정진 스님은 "일본불교의 철저한 문화재 관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특히 일본불교는 대·소승 불교의 장단점을 보완해 자신만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교육, 복지,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사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우리 역시 벤치마킹할만하다"고 말했다.

합천 영암사 총무 자행 스님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불교에 대한 편견을 벗겨낼 수 있었다. 이 같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교토·오사카·나라·신주리 기자



순례 3일째인 9월 28일 찾은 나라의 약사사에서 해체 복원 중인 동탑의 보륜을 순례단이 답사하고 있다.



나라 법흥사에서 만난 백제관음상 앞에서 순례단이 예불을 올리고 있다. 사진촬영은 금지였지만, 안내하는 스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촬영했다.



동대사의 조사전에서 지도법사 보광 스님이 천도법회의 의식을 주관하고 있다.



일본불교의 정원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진언종 총본산 금강봉사의 정원.



나라 법흥사 회랑을 둘러보고있는 순례단.



순례단 스님들이 진언종 총무원장 소에다 류소 스님과 대담하고 있다.

교토서 일본불교의 힘을 보다

일본 고찰 순례의 첫 출발점은 교토. 순례단은 임제종 남산사파 대본산 남산사를 시작으로 이충, 청수사, 금각사, 용안사 등 견학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광동사에 소장된 일본 국보 1호인 미륵보살상. 한국의 적송으로 조성됐다고 하는 미륵보살상은 한국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쌍둥이같이 닮아 오래 전부터 한일 교류의 증거로 여겨왔던 불상이다. 지금은 별도의 박물관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그들의 성보(聖寶) 관리다. 일본 사찰의 어딜 가도 불상과 보살상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사진기를 통해 나오는 빛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경의 대상인 부처를 함부로 사진에 담을 수 없다는 그들만의 신앙적 소신이기도 하다.

사찰을 이동하면서 지도법사 보광 스님에게서 일본불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순례의 매력이었다. 특히 스님은 자신이 유학하고 있을 당시의 사정을 곁들여 교토 불교의 속사정과 힘을 설명했다.

"1980년대 교토 시장이 교토의 관광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교토제한을 폐지하려 했습니다. 교토불교협회는 성보 문화재와 전각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지요. 결국 교토 지역 전 사찰은 산문을 폐쇄했습니다. 산문 폐쇄의 기간은 4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산문 폐쇄는 결과적으로 교토시에게서 항복을 받아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옛 한반도 선현의 자취를 만나다

교토에서 오사카로 이동한 순례단은 아스카와 나라 시대의 불교를 찾았다. 교토의 사찰들이 일본불교의 융성과 완성을 보여준다면 나라와 오사카의 사찰들은 일본불교의 시작을 보여준다.

교토, 나라 등 일본 관서 지방

지도법사로 보광 스님 모시고

40여 스님 4박 5일 사찰 순례

백제 관음상, 행기 조사당 등서

선지식 자취 느끼며 법회 봉행

고야산 대학, 각 종파 견학하며

일본불교의 생생한 현장도 체험

손 양변 스님과 행기 스님이 창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본인들에게는 보살로 추앙받는 행기 스님은 결식과 행각을 하면서 빈민구제와 도로, 다리 건설, 사회사업을 펼쳤고, 그를 신봉해 따라다니는 신도가 1천 명이 됐다고 한다. 워낙 유명하다보니 황실의 견제를 받아 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동대사 화주승으로 나서 정체를 봉헌해 대승정의 위치에 오르기도 했다.

동대사 대웅전 뒤로 한참을 오르면 행기 스님을 모신 조사당을 만날 수 있다. 현재 조사당 전영은 복원 작업을 위해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순례단 스님들은 위패와 가계 등 공양물을 올리고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의식을 주도한 보광 스님은 "백제 도래인으로서 일본 불교의 한 획을 그은 행기 스님을 기리는 조사당에서 후손인 우리가 천도법회를 봉행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일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행기 스님의 원력과 가피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생활화 어떻게 할까

순례단의 마지막 일정은 일본에서도 가장 종교색이 짙은 곳인 진언종 총본산 고야산이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야산은 8개 산에 둘러싸인 분지로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 전사관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angsa.co.kr / E-MAIL : sungja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대한민국 명장)

이 사람이!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을 담아야 천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